

사평역 희망의 노래

극단 '푸른연극마울'

29~30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추운 겨울, 작은 시골 간이역에 모여 오지 않는 막차를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기차는 오지 않고 그들을 조롱하듯 그들이 결코 탈 수 없는 특급열차만 역을 스쳐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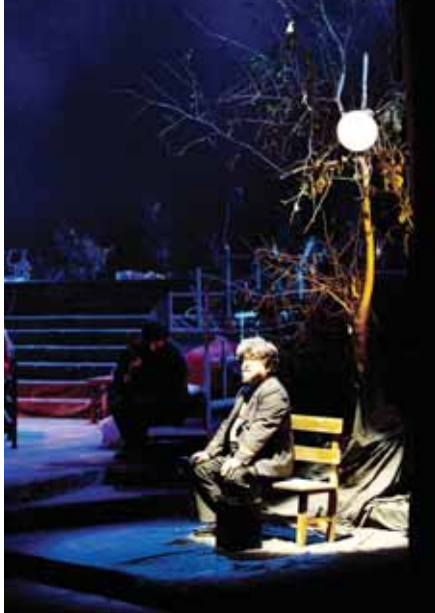
70~80년대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일상을 담은 연극 '사평역'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푸른연극마울'은 29~30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페스티벌 오!광주' 브랜드공연 출품작 '사평역-희망의 노래'를 선보인다.

광재구의 시에서 모티브를 따 오성 완씨가 각색·연출을 맡은 '사평역-희망의 노래'는 시골 간이역을 배경으로 1970~8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과 사회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윤희철·이광금·김인순·최미선·김승덕·박세연씨 등이 출연한다.

'사평역'은 2010년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연출상·무대연출상·신인연기상을 받았고 전국연극제 본선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9·30일 오후 7시30분 두차례 공연된다. 티켓 가격은 2만원, 1만5000원, 1만원. 문의 062-670-746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풍암동 '갤러리 아크' 신고합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옆에 상업 갤러리가 문을 연다. 이 지역은 월드컵 경기장 등 체육시설과 풍암호수공원,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 등이 인접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동안 갤러리나 공연장 등이 없었다. 문화 향수를 불러넣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오는 30일 풍암동 모아레포스타운 지하1층에 개관하는 '갤러리 아크'(Ark·대표 허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문화프로그램과 연주회 등을 열어 일반 대중과 예술인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할 예정이다. 미술에만 그치지 않고 방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다.

허 대표와 이 관장은 이 갤러리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갤러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서울지역에 갤러리 오픈도 구상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미술평론가인 장

론 해외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10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New Voyage'를 주제로 강운, 김유섭, 김진화, 박구환, 손봉채, 서정민, 신호운, 이설재, 이이남, 한희원의 회화, 사진,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조대 출신인 김유섭씨의 경우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종합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등 해외무대에서 더 주목하는 작가이고, '한지 화가' 서정민씨는 오는 6월1일부터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돼 세계적인 거장들과 나란히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개막은 30일 오후 5시다. 개막식에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74) 명창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허정 대표는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양한 장르와 예술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작가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수를 전파하면서 망망대해를 지나 미술의 새로운 세계를 찾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71-123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운씨 등 현대미술 작가 10명 초대 30일 개막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예술인 가교 역할 할 것"

정·관장 이묘숙). 이 공간은 당초 허정 대표의 작업실이었다. 허 대표는 천체계에 있는 지역 미술계에 새 바람을 불러 넣자는 취지로 친구이자 미술평론가, 아트디렉터로 활동중인 이묘숙 관장과 머리를 맞대 갤러리로 탈바꿈 시켰다.

갤러리 이름인 아크는 크리스찬인 허 대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따온 이름이다. 노아의 방주처럼 지역 미술의 가능성을 모두 담아 예술 세계로의 힘찬 항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앞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비롯해 대관전 등을 통해 지역 미술인이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준씨를 명예관장으로 내세웠다.

공간 자체도 매력 있다. 지하라고 하면 침침한 공간을 떠올리게 되지만 입구에 있는 탁 트인 계단이 마치 배에 승선하는 느낌을 선사한다. 철판으로 된 이색적인 형태의 문을 열고 갤러리를 들어서면 '구'자 형태의 전시공간이 펼쳐진다.

하얀 벽면에 쏟아지는 은은한 조명이 작품의 깊이를 더하도록 돕는다. 다소 평범하게 비칠 수 있는 공간에 놓인 독특한 형태의 파티션이 갤러리를 돋보이게 한다. 모두 허 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것들이다.

아크의 첫 출항을 알리는 개관전의 중량감도 만만치않다. 광주 출신으로 국내는 물



김진화 작 '꿈+나무'

공선옥 교양강좌

소설가 공선옥(사진)이 5·18 33주년을 맞아 오월과 여성의 삶을 돌아보는 강좌를 한다.

공 작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MBC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주최로 광주신세계백화점 9층(신세계아카데미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광주MBC 교양강좌에서 '오월과 여성의 삶'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최근 80년 광주를 소재로 펴낸 장편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통해 '오월 문화의 변주'라는 평가를 받았던 작가는, 이번

30일 광주신세계백화점



강좌에서 주변부 삶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공 작가는 1963년 전남 곡성 출생으로 1991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중편 '씨앗 불'로 등단했다. 신동엽창작기금,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을 받았다. 문의 062-360-262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7개 문화예술기관 정례협의체 결성

광주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가칭) 광주문화기관 정례협의체'가 만들어진다.

27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을 비롯해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아시아문화개발원 등 7개 문화기관 정책실무진들이 최근 준비모임을 갖고 정례협의체를 결성, 문화관련 아이디어 교류 등을 시작으로 문화정책 개

발 및 정책제안까지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진들은 각 기관들의 고유사업이 약간씩 다르지만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오는 6월14일 광주문화재단에서 한차례 더 모임을 가진 뒤 향후 매월 한차례 기관별로 순회하면서 정례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명 한마당

시립국악단 30일 문예회관



오정해



임이조

광주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 정기연주회가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국악인 오정해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판소리와 무용, 옥류금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의 서막은 '밀양 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의 선율을 주제로 한 백대용 곡 '남도 아리랑'이 장식한다. 이어 북한의 개량 악기인 옥류금 협주곡 '백도라지'를 김계옥씨가 선사하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임이조씨가 관현악 연주에 맞춰 선보인다.

오정해씨는 단가 '사철가'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주며 피날레곡은 팽과리 선율이 인상적인 이화동 곡 '춤을 위한 겐지경'이 장식한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62-512-5395. /김미은기자 mekim@

오누이의 '소리'

30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오누이 소리꾼이 들려주는 판소리.

광주시 서구청(청장 김종식)이 주최하는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에 남매 소리꾼 윤세린·해동누리씨가 출연한다. 30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 공연장.

오빠 세린씨는 이날 공연에서 보성소리 '심청가' 중 '아버지와 이별 후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동생 해동누리씨는 역시 보성소리 '춘향가' 중 '춘향과 이도령 이별 대목'을 들려준다.

두 사람은 광주예고, 전남대 국악과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전남도립국악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세린씨는 전남대 국악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고수는 김동근(전남도립국악단원)씨.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 약, 흥 삼 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 환